

# 불만제路 모의고사 6회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의 주된 과제가 개인이나 사회가 받아들이는 규칙이나 구체적인 도덕 판단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윤리학은 개인의 도덕적 의식이나 문화권내에 존재하는 도덕적 관행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생활과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기술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윤리학이 '어떻게 행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덧붙여 삶의 구체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더불어 어떤 학자는 현실의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이론 윤리를 적용하여 사람의 성품, 행위, 법, 제도, 관습 등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윤리학의 연구는 경험 과학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 ②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심리적 인과 관계를 분석해야함을 간과했다.
- ③ 윤리학의 탐구는 도덕 판단의 준거와 행위의 정당성을 다루어야 함을 간과했다.
- ④ 윤리학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적인 규범이 없다는 것을 전제함을 강조했다.
- ⑤ 윤리학의 본질은 도덕적 쟁점의 사회적 반응을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임을 간과했다.

2.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 해당하는 진술에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게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다. 행위와 관련해서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그런데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하고, 이것들 안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잘못을 범하는 반면,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또한 옹골게 성공한다. 이 양자가 품성적 덕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품성적 덕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일종의 중용이다.

진술	학생				
	갑	을	병	정	무
절제 있는 사람은 무절제한 사람이 즐기는 모든 것들을 중간의 방식으로 즐긴다.		V		V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중용은 어떤 행위와 감정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V	V	V		
감정과 욕구가 이성의 명령에 따를 때 품성적 덕을 갖출 수 있다.	V		V	V	V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V	V		V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3.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민족주의의 긍정적 역할과 성취를 인정하되, 경계와 구분을 완화하고 정의에 입각한 규율이 지배하는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 간의 동등한 대화와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일 민족으로서의 민족 동질성 회복이 통일의 유일한 과제라고 주장하며,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역사와 문화, 핏줄을 지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 (㉡) 옳지 않다고 본다.

- ① 문화적 단일화가 아닌 정치적 체제의 합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 ② 혈연과 같은 민족 구분의 객관적인 요소를 경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 ③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의 소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므로
- ④ 동일한 역사적 정체성을 공유한 사람을 한민족으로 대우하지 않으므로
- ⑤ 개별 문화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문화만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4. (가)의 갑, 을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친애하는 자는 인자(仁者)가 아니다.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자는 현자(賢者)가 아니다. 이(利)와 해(害)를 구별하는 자는 군자(君子)가 아니다. 명성을 좇아 참된 자기를 잃은 자는 선비(士)가 아니다.

을: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滅)하기 때문에 그것이 멸한다. 무명(無明)으로 인해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생기고,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멸한다.

		(A)	
(B)			

(나)

[가로 열쇠]

(A) : 엘리야테가 제시한 '성스러운 드리남'이라는 개념

(B) : '자신을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함'을 뜻하는 사자성이 [세로 열쇠]

(A) ..... 개념

< 보기 >

- ㄱ. 갑: 도덕적 본성의 확충을 위해 신독(慎獨)을 실천하는 존재이다.
- ㄴ. 을: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慈悲)을 실천하는 존재이다.
- ㄷ. 갑: 좌망(坐忘)을 통하여 일체의 분별 의식에서 벗어난 존재이다.
- ㄹ. 을: 허심(虛心)을 통해 모든 망상과 번뇌로부터 초월한 존재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의무도 지닐 수 없다. 인간의 다른 존재자들에 대한 의무는 한낱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지나지 않으며,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 배척된다.

을: 만약 개체들이 미래에 대한 의식과 복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심리학적 정체성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개체들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 삶의 주체들이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병: 참나무는 사슴의 먹이가 되고, 사슴은 퓨마의 먹이가 되며, 퓨마는 참나무 밑에서 죽어 지난날 자신의 먹이들을 위해 도토리도 되돌아간다. 참나무에서 시작하여 참나무로 되돌아가는 것은 많은 먹이사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나)

- ① A: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됨을 간파한다.
- ② B: 도덕적 의무의 차원에서 인간은 동물에 대한 대우를 고려해야 함을 간파한다.
- ③ A, F: 지의식과 자율성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지위와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간파한다.
- ④ C, E: 지나친 공동체 경계의 확장이 개체들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간파한다.
- ⑤ D, F: 자원으로 간주될 수 없는 존재는 목적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간파한다.

6. 다음 사상의 관점에 해당하는 진술에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 )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란 무엇을 포기하고 빼앗기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충만한 생명력과 힘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활기차게 살아 있다는 기쁨을 느낀다. ... (중략) ... 물질적 영역에는 도저히 줄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사랑에는 도저히 줄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적 영역에서 기쁨, 흥미, 이해, 지식, 유머, 슬픔 등 자신 안의 모든 생명력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타인을 풍족하게 하며, 동시에 자신의 생명력을 고양시킨다

진술	학생	갑	을	병	정	무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나의 입장에서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V		V	
참된 사랑은 고립감을 극복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V	V	V		
참된 사랑을 주는 것은 잠재적인 능력의 표현이자 생산적 활동이다.		V		V	V	V
참된 사랑의 자발성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희생으로 완성된다.			V	V		V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3점]

갑: 모든 사람은 정치적 자유,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등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재산과 소득의 분배는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직위를 개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하게 된다.  
 을: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유로운 활동에 의하여 공정한 과정에 따라 재화를 획득하였다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복지권의 실현을 명분으로 부를 재분배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는 기부나 자신 행위 등과 같이 사회 구성원들이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 ① 갑: 정의의 원칙은 이익 배분의 근거가 아닌 권리와 의무의 할당 근거이다.
- ② 갑: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 향상을 처지가 나은 자들의 이익을 정당화 한다.
- ③ 을: 도덕적 공과(功過)나 사회적 효용에 따른 분배는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 ④ 을: 각 개인들의 과거 행적만이 제도에 대한 차별적인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 낸다.
- ⑤ 갑, 을: 분배의 정당성은 분배된 결과보다 분배의 절차적 과정에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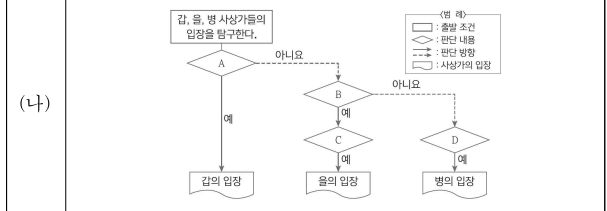
8. 다음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갑: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한 고을을 얻으면 건방져지고 사치스럽게 되어 절약하지 않고 재물을 함부로 써서 빚이 날로 불어나면 반드시 욕심을 부리게 된다. 욕심을 부리면 아전들과 짜고 일을 꾸며 이익을 나눠 먹게 되고, 이익을 나눠 먹다 보면 백성들의 고향을 짜게 된다. 그러므로 절약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이다.  
 을: 국가의 수호자는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사유 재산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은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영혼 안에 신성한 금이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금은은 필요하지 않다. 수호자는 세상의 금은을 멀리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자신도 구하고 나라도 구할 수 있다

- ① 갑: 공직자의 청렴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이다.
- ② 갑: 공직자는 애민(愛民)의 마음으로 곤궁한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야 한다.
- ③ 을: 올바른 통치와 정의를 위해 다스리는 자는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야 한다.
- ④ 을: 올바른 통치와 공익을 위해 모든 계층의 사적 소유는 금지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다스리는 사람은 직책에 맞는 능력을 지녀야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

9.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3점]

(가)  
 갑: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우리답게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뜻한다. 우리는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자로 경험한다는 사실에서 여타의 동물들과 구별된다. 인간의 삶의 본성과 인간의 죽음의 본성은 서로 분리할 수 없게 얽혀 있다.  
 을: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고통, 즉 생로병사(生老病死) 중 하나이다. 그렇다고 죽음이 삶의 끝은 아니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죽음을 통해 다른 생으로 연결된다면 생사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의 삶이 이후의 삶을 결정하므로 신한 삶을 살아야 한다.  
 병: 철인(哲人)은 영혼과 더불어 순수하게 되기를 원한다네.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어 하데스(사후 세계)에 도착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던 지혜를 얻게 될 희망이 있고 그들의 원수와 함께 있지 않게 될 걸세. 그렇다면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로서 어떻게 죽음을 싫어하겠는가?



< 보기 >

- ㄱ. A: 비본래적 존재는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려 하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 기준을 자신의 궁극적 가치로 받아들이는가?
- ㄴ. B: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 ㄷ. C: 업(業)이 소멸하면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ㄹ. D: 잘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정화될 필요 없이 순수한 상태의 영혼을 간직한 채로 삶을 마감하는 것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갑, 을, 병이 서로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옳은 것은? ( ) [3점]

갑: 의무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된 모든 행위는 그것들이 비록 이렇저런 의도에는 유용하다 할지라도 무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들은 의무와 상충하기조차 하며, 과연 그것들이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일 수 있느냐는 물음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을: 쾌락과 고통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강력성, 지속성, 확실성, 원근성이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의 가치가 그것을 낳는 행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산성과 순수성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범위, 즉 쾌락과 고통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  
 병: 도덕적 삶의 본질적인 핵심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즉 도덕적 개인은 무조건 규칙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훌륭한 개인,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인은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	~에게	비판 내용
①	갑	을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도 반드시 옳은 행위는 아닐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②	갑, 을	병	도덕적 행위는 추상적 원리가 아닌 구체적 상황과 감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③	을	갑	행위의 유용성은 보편적 도덕 원리가 아닌 결과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병	갑, 을	보편적 행위 규칙의 준수보다 행위자의 내면적 품성과 개인의 주체적 선택에 주목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갑	병	도덕 법칙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자에게 의무이자, 도덕적 강요의 법적임을 간과하고 있다.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경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하는 공공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이다. 이 행위는 양심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점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한 도덕관에 근거한 행위와는 다르다.  
 을: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행위 하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민 불복종자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지배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표명하게 된다.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키므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경로나 혼례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위험일 수는 없다.
- ② 갑: 시민 불복종은 전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최후이자 유일한 항거 수단이다.
- ③ 을: 다수의 입장인 정부의 정책과 법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을: 시민 불복종의 처벌 갑수는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을 표명하는 것이다.
- ⑤ 갑, 을: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불복종은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도해야 한다.

12.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 해당하는 진술에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 )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이러한 갈등의 제거는 인종이건 국가건 경제 집단이건 인간 집단들이 어느 정도의 이성과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도덕적 선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한계 및 인간의 상상력과 지성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개인들은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이상이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진술					
도덕적 개인이 승인한 제재만이 집단의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다.		V		V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을 밝힘으로써 갈등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다.	V	V	V		
합리적으로 수궁할 수 있는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는 강제력의 사용은 정당화 될 수 있다.	V		V	V	V
집단은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치지만 개인은 집단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V	V		V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 )

우생학적 프로그래밍은 해당 인격체에 일정한 삶의 계획을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선택의 자유를 제약한다. 부모의 선택에 의한 유전적 간섭은 그것이 자녀의 극단의 그리고 일반적인 악의 제거 차원의 경우에만 자녀의 동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모든 인격체는 동일한 규범적 지위를 누리며 서로 인정을 주고받는다라는 믿음은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가역적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어떤 사람도 원칙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우연적으로 출생한 아이와 달리, 우생학적 의도에 의해 유전학적 개입으로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이전 세대의 의도가 개입되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치료를 위한 유전학적 개입은 모든 사람들이 나중이라도 동의할 수 있지만, 자질 향상을 위한 유전학적 개입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더라도 확신할 수 없다.

- ① 치료 목적의 유전자 개입의 시도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허용될 수 있는가?
- ② 우생학적 프로그래밍은 자녀의 삶을 온전한 저자로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가?
- ③ 적극적 우생학은 보편적 합의의 가능성이 적어 도덕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가?
- ④ 유전적 프로그래밍은 사람들 상호간의 관계를 비대칭적 인간관계로 전환시키는가?
- ⑤ 유전적 자질의 강화는 인간 서로를 동일한 인격체이자 주체로서 존중하게 하는가?

14. 다음 서양 갑, 을 사상가 모두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 ( )

갑: 신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건한 자의 생활은 정확히 상업에 종사하는 삶들과 비유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상품을 교환하고 교역해야 되기 때문이다. 신이 그들에게 맡긴 직업, 소명, 행동 능력, 그리고 여러 은사는 상품의 거래를 통해 실행된다.  
 을: 매뉴팩처는 이전에는 독립적이었던 노동자를 자신의 지휘와 규율에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신들 사이에 등급적 계층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노동자의 일체의 생산적인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를 기형적인 불구자로 만든다. 기술적 분업의 확대는 노동자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질문	대답	
		갑	을
①	직업에서의 노동은 생계유지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가?	아니요	예
②	자본주의 생산 양식은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발생하는가?	예	아니요
③	자본주의의 경제 질서는 금욕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	아니요	아니요
④	참된 노동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를 것 이어야 하는가?	예	예
⑤	노동과 지식의 결합 과정은 노동자를 부분 노동자로 전락시키는가?	아니요	예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공동의 권력을 확립하는 길은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며, 이를 통해 '지상의 신'이 탄생한다.  
 을: 국가의 권력, 또는 입법부의 권력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보장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양도하며, 입법권은 인민의 평화와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병: 공동의 힘을 다해 각 회원의 인격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며, 각자가 모두와 결합함에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에 전만큼 자유로운 회합 형식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사회 계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 문제이다.

(나)

- ① A: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이 법률의 제정자가 되어야 함을 간파한다.
- ② D: 계약 이후에는 국가만 시민에 대한 형벌권을 소유함을 부정한다.
- ③ A, F: 개인은 군주에게 자신의 생명 보존의 권리까지 양도해야 함을 간파한다.
- ④ B, D: 개인의 재산, 생명권 보호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침을 부정한다.
- ⑤ C, E: 주권은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고, 분할 될 수 없음을 간파한다.



1	5	2	1	3	5	4	3	5	5
6	1	7	1	8	4	9	4	10	5
11	2	12	1	13	5	14	4	15	5
16	4	17	3	18	4	19	2	20	4